

Aal izz well



Aal izz well은
'All is well'의 인도식 발음입니다.
긍정적으로 인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RatonAtti 10th
Mumbai, India

Contents

1. 단원 소개
2. 9월 일정
3. 9월 활동 보고
 - BOMBAY YMCA Branch 방문
 - HINDI Class
 - Kamathipura Day care center
4. 우리들의 이야기
5. 9월의 특별한 이야기
6. Monthly Photo

1. 단원 소개

Be loved

“PRIYA”

Sincere

“NEETA”

Ears

“KARAN”

Healing

“ROHAN”



2. 9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Arriving	7 Branch 방문
8	9 뭉바이 탐방	10 Branch 방문	11 Branch 방문	12 Branch 방문	13 Branch 방문	14 HINDI CLASS
15 Onam Festival ☉Procter Branch 문화탐방 ☉Bandra	16 HINDI CLASS Play School NSC	17 HINDI CLASS Play School NSC	18 HINDI CLASS Staff Meeting Ganesh Festival	19 HINDI CLASS Play School DCC	20 HINDI CLASS Play School NSC	21 HINDI CLASS DCC
22 Onam Festival ☉Student Branch	23 HINDI CLASS Play School DCC NSC	24 HINDI CLASS DCC	25 HINDI CLASS DCC NSC	26 HINDI CLASS DCC	27 HINDI CLASS DCC VTC Fair ☉IH	28 Korea Culture Day ☉DCC
29 문화 생활 ☉영화관	30 HINDI CLASS Play School DCC NSC					

3. 9월 활동 보고

(1) BOMBAY YMCA Branch 방문

인도 도착 후 첫 주는 BOMBAY YMCA의 각 Branch들을 방문했다. BOMBAY YMCA는 '삶에 가치를 추가'라는 모토로 호스텔, Day Care Center, Night Study Center, Play-School, 직업 훈련 센터(Vocational Training Center), 상담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점은 MS-CIT, Mehendi, Tailor, Beautician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 훈련 센터(VTC)에서 청년 및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다.

BOMBAY YMC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센터들을 체계적으로 진행 및 운영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우연히 기회가 닿아 우리는 BOMBAY YMCA의 정기적인 Staff Meeting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각각의 Branch가 아닌 BOMBAY YMCA 전체가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HINDI Class

9월은 인도의 공용어 중 하나인 힌디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 곳에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힌디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힌디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어로 힌디어를 배운다는 것은 아직도 조금 어렵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말로 우리에게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면 반갑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곳 사람들도 우리의 어수룩한 힌디어 인사와 말을 반가워 해 주고 즐겁게 받아 주었다. 이렇게 힌디어 시간에 배운 단어나 문장을 활용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어 기뻐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힌디어를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Kamathipura Day care center

Kamathipura 지역은 흥등가 및 슬럼가가 많이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있는 센터는 Play-School, Day care, Night stud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Day care의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아이들은 주로 오전에 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이곳으로 온다. Day care center는 아이들이 숙제하고 기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방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래와 함께 놀고, 간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Kamathipura Day care center

이 곳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영어 챗트와 비누방울 놀이를 했다.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진행한 첫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이 챗트가 나오자 굉장히 즐거워 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기뻐했다.

비누방울 놀이는 Day care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곳의 선생님, 동네 아이들, Day care center 주변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했다. 간단한 놀이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반면 비누방울 놀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지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주거나 놀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한계를 느끼기도 한 활동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쌓아갈 시간들이 기대된다.



(3) Kamathipura

Day care center

처음 이 곳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주변환경에 굉장히 놀랐다. 주위의 아파트에서는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아무렇게라도 얇게 창 밖으로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Day care center 주변은 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와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었고, 아이들은 위생 문제와 질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Center 주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우리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이곳의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Center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 주민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무자와의 회의를 거쳐 Snack Party를 제안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Korea Culture Day를 기획하게 되었고 Center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님,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더불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이것을 개선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Center 주변을 직접 청소할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시발점이 되어 집 밖의 공간도 자신의 생활영역임을 인식하고 깨끗이 해야 할 공간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3) Kamathipura Day care center



4. 우리들의 이야기

KARAN (류병수 단원)

낯가림 ; 갓난아이가 낯선 사람 대하기 를 싫어하는 일



새로운 것은 기대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두렵기도 하다. 때때로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설렘을 느끼기보다 '낯가림이 심해서...'라는 말로 둘러대며,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해왔다.

인도에서의 첫 달 역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다르게 두려움을 가졌던 시간들이었다. 이곳에서 첫 주를 보내면서 Mumbai YMCA Branch 탐방을 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장들과 실무자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Juhu Center나 Boys Home과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과 몇 시간씩 보내기도 했다.

사실 처음 만난 아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다른 단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려주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친해지는 가운데서 상반된 모습이었던 것 같다. 하루 나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 일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그 아이들과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이름을 애써 기억하러 하며 언제 또 올 것인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하냐는 변명 아닌 변명만 들어놓았던 것 같다. 애써 감췄던 낯선 것을 대하는 소극적인 태도였다.

그러던 차에 지난 8월, 라온아띠 지역훈련(지역NGO 인턴십)의 하나였던 '지역아동 센터' 활동 중에 센터장님을 통해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시네버 스 대신 마침 YMCA에서 회의가 있다는 센터장님의 차안에서 나눈 대화에서였다. "병수 셋, 잘하는데... 아이들에게 쉽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인도에 파견되면,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보라"던 그 말. 분명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유독 눈에 띈 것이 그것일테다. 그리고 맞는 말이었기에, 충분히 반성하고 인도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런 내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나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지금은 얼마 간의 내 행동을 반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노력하고 있다. 그 덕에 다소 재미있는 일도 겪었다. Kamathipura Day-Care-Center 환경개선 활동을 위해 그곳을 매일 방문하는 과정에서였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그곳의 발와디(Balwadi, pre-school) 아이들을 보게 됐다. 생각을 달리하고 먼저 다가가서 부딪혀보려고 하고 난 뒤여서 그런지 그 아이들도, 나도 제대로 된 언어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즐겁게 놀았다.

머칠에 불과하지만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고, 그 중에서도 (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유독 그날따라 내게 자주 찾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화장실로 가고자 했다. 그래서 바지와 속옷을 벗겨주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소변이었거니 했는데, 대변이었다. 대변을 치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휴지가 아닌 물을 이용하여 뒤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적잖게 당황해서 뒤처리를 못해주고 있었다. (분명 아이는 나를 또렷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못해줘서 정말 미안했다) 선생님이 오셔서 뒤처리를 해주셨다. 몇 분이 지난 후 그 아이가 눈물이 고인 상태로 나에게 왔다. (아마 그곳의 선생님께서 꾸짖었을 테다, 가끔씩 징긋게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꾸짖으신다. 물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오히려 불편하기는 하다. 이곳의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의 일부 일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날따라 일정이 변동되어, 다른 단원에게 맡기고 점심식사를 위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떨어지지 않으려 해서 그날 내내 신경이 쓰였다. 활동을 마치고 전해들은 바르논 누구한테 안기지는 않고 좀 더 울다가 열심히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Neeta의 말로는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같이 화장실을 가자고 하지 않는대며, 그만큼 나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마음을 고쳐먹고(?) 나타난 해프닝이란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사건이고 앞서 걱정하는 것 역시 이를 판단이었다 생각됐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낸 지금은 영어가, 힌디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나는 낯가림을 가리기 위한 핑계였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 낯가림이란 단어를 찾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났다. '갓난아이가 ~'라는 말 때문이다. 갓난아이가 주로 하는 행동을 스무 살을 훌쩍 넘긴 청년이 '낯가림이 심하다'는 말로 돌려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인도에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로 인해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말도 통하지 않지만, 그냥 몸짓만으로 서로가 친해지고 또 서로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요즘 한동안 말없이 내 얼굴표정만 보고 있던 아이가 장난 삼아 하는 발길질이 고맙다. 선생님께 흉내고 내게 자기편을 찾아 오는 아이가 되려 힘이 된다. Night-Study-Center에 매번 와서 킹콩 흉내를 내며 재잘거리더 아이가 오지 않으면 걱정된다. 다음날 계속해서 수학문제 풀자고 문제 내어달라고 오자마자 조르는 아이를 보면 힘이 생긴다. 우리가 알려준 영어 Chant를 자연스레 따라 하고 있는 모습에 신난다. 그렇게 낯선 사람에게 적응해가고 있다. 한 번에 많이는 못하겠고, 한 명씩 한 명씩... 분명 한번에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자고 또 다짐한다. 어디든 사람을 대하는 곳은 마찬가지니까. 나는 또 사람을 만나고 있을 테니까.

PRIYA (박소현) 단위

9월이 지나간다. 언제 8월이 있었냐는 듯 9월도 오더니, 이제는 10월도 그렇게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가 인도에 오긴 왔구나’ 이제서야 실감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다.

인도에 와서 PRIYA라는 이름이 생겼다. 고등학교 회화시간에 임의로 정해진 영어이름을 제외하고는 처음생긴 다른언어 이름이다. ‘소현아’가 아닌 ‘쁘리야’로 불려진다는 건 생각보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다. 인도 친구 말에 의하면 PRIYA는 to be loved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한달 가량 라온아띠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건 아이러니하게도 ‘난 정말 사랑받는 행복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었다. 나의 인도 이름처럼 말이다.

사실 인도를 오기 전까지는 꼭 그것이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나마 나는 많이 ‘주는’ 입장에서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메일함과 나를 보고 언제나 반갑게 ‘디디’라고 부르며 손 흔들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인도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받는 마음의 무게만큼, 나도 충분히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었다.

‘쁘리야’라는 이름을 처음 받았을 땐 뜻이 너무 예뻐 마냥 좋기만 했는데, 지금은 위의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싱숭생숭하다. 앞으로 내 ‘쁘리야’라는 이름은 남은 기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시키는 촉매제 역할이 될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소설엔 이런 문구가 있다. '세계는 그녀에게 당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만나 우연히 허락된 가능성, 아슬아슬하게 부풀어오른 얇은 거품일 뿐이었다.' 책의 줄거리와는 무관하지만 이 부분의 문구를 읽으면서 여기 지금 내가 인도에 와 있는 것도 어쩌면 수많은 변수들이 만나 우연히 허락된 하나의 가능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수많은 변수들을 타고 나는 인도까지 왔다. 우연히 허락된 그 작은 확률과 수많은 변수들을 지나 난 지금 조금은 낯선 눈들과 마주하고 있다. 나의 눈과는 사뭇 다르게 생긴 크고 깊은 그 눈들 속엔 내 모습이 되비친다. 낯설지만 왠지 낯설지 않다. 웃는 게 참 예쁜 아이들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인도를! 이렇게 나는 만나게 되었다. 결코 쉽게 만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래서 이 만남이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 이 에세이를 쓰고 있는 숙소 책상 위에는 9월초에 뭄바이 공항에서 우리 팀 코디네이터께 받은 꽃 목걸이가 말라버린 채 걸려있다. 시간이란 건 참 덧없어서 더 소중한 것 같다. 이 소중한 만남의 끈들을 제발 내가 망각하지 않기를,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활이 '사랑의 흥내 짓'이 아닌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앞으로 남은 4개월은 '쁘리야(Priya)'보다는 뿌리와(힌디어로 family)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다.



아주 멀리까지 가 보고 싶어
그곳에선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머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어제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초췌한 땅바닥, 앞서 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낯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내가 자라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김동률 - 출발>



ROHAN (서용덕 단원)

이 노래의 가사는 마치 내가 처음 라온아띠를 지은 할 때의 마음과 비슷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설렘.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 물론 아무런 고통을 받지 못한 상태의 나여기에 가질 수 있었던 순진(?)한 마음이었다. 또, 설렘과 기대에 비례하게 가지고 있던 망설임과 두려움. ‘과연 내가 지금 학업을 중단하면서까지 해외 봉사활동을 가야 하는 것인가.’,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나보다 앞서 나가는데 나는 혼자 다른 길로만 새는 것이 아닌가.’ 등 많은 고민도 동반되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인도에 와 있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시작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와 자언활동가로서의 나의 마음가짐들이 서로 상충되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사실, 아직까지 자언활동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국내훈련에서 들었던 것들, 그리고 글로 읽은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잘 조화시키면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어쨌거나, 지금은 인도라는 곳에, 인도의 문화에, 인도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 그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할 뿐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가끔 어색하기도 하다.

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면서 즐기면서 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의 인도인들과 합일화를 이루며 그들이 생활과 나의 생활을 일치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나에게 던지는 자업자득으로서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가끔가다가 ‘여긴 어디? 나는 누가?’ 할 때가 있다. 그렇게 어벙하게 멍 때리다가 ‘아! 여긴 뭇바이, 나는 라온아띠!’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곤 한다. 라온아띠로서 주어진 일들, 개인적으로 이뤄내고 싶은 일들, 한국에서는 하지 않던 많은 생각들 때문 일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들 안에는 두려운 걱정들도 있지만 남들이 뭐라 하던 난 이 길을 선택했고,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이 곳에서의 5 개월을 팀원 모두가, 그리고 모두와 즐겁고 쾌활하게,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돌아가길 기이 바라고 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과제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번 라온아띠 활동을 할 수 있음에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리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싶다.

아직까지는 김치와 소주가 그리지 않은 시점에...

NEETA (조현정 단위)

지난 7월에 만나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벌써 3개월이다.

처음에는 뽀뽀소리만 내고 어긋나던 네 개의 톱니바퀴가 이제는 서로에게 조금씩 맞추어 가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네 명이 만나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가끔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들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생활하면서 서로가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 같다. 인도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끼리 소소하게 즐거움도 찾아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지금이 더 웃을 일도 많고 즐거운 것 같다.



Kamathipura에 있는 Day care center에서 “Uvaish”라는 아이는 내가 힌디어를 못하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 끊임없이 힌디어로 이야기를 한다. 손 제스처나 억양, 말투, 그리고 내가 알아듣는 2~3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느낌만 알고 있다. Uvaish가 나에게 힌디어로 말할 때 마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의 말에 제대로 반응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다. 내가 말로써 Uvaish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내 진심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행동, 눈빛, 손짓을 통해 내가 Uvaish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낀다는 것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드디어 힂디 이름이 생겼다. 내 힂디 이름은 "Neeta"이고 뜻은 "Sincere"이다. 내 이름의 뜻처럼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힂디 이름이 생기고 나서 인도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 줄 때 참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Neeta Didi!라고 불러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 아이들도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불러 주고 함께 놀자고 하는 것이 참 좋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끼는 것 같다.

누군가와 함께 즐거울 수 있고 사랑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4개월도 즐겁고 힘찬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고 앞으로 함께 시간들이 기대된다.



1. 인도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했다. 소감은?



인도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한 소감을 한 마디로 하자면 인도생활에 완전 적응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인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현지인 없이 우리 넷이서 International House 근처를 돌아본 적이 있었다. 그 때 돌아보면서 느꼈던 낯섬과 경계심, 두려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여기저기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사람과 자동차, 동물들이 도로 위에 뒤엉켜있는 모습은

굉장히 낯설고 불편했다. 차선이 없는 차도에 많은 차들이 서로 지나가겠다고 빵빵거리고 아슬아슬하게 추월을 한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달리는 차들을 멈춰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를 가로질러 지나간다. 한국에서의 무단횡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도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1달이 지나가는 지금, 그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어느새 내가 손을 들어 지나가는 차를 막고 있고, 가끔은 내가 인도의 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진다. 나도 어느새 길을 건널 때 손을 들어 차를 세우고 길을 건너고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놀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준다. 다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인도 사람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Ignore" 이다. 현지인들조차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 그들의 눈을 마주하지 않는 것. 무시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절대 편한 것은 아니다. 한 달 가까이 인도에서 생활 했지만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정리가 덜 된 것 같다. 어떤 때에는 그들을 못 본 척 무시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불편하다. 아마 인도에서 생활하는 내내 이 고민은 계속 될 것 같다.

인도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한국과는 엄청 차이가 난다. 가난의 문제도 이곳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절대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인도 생활은 직접 와서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

2. 지역의 축제도 몇 번 있었고, 체험하기도 했다. 특별히 받은 느낌이 있나?

한국에도 지역 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도는 축제 기간도 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긴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인도 사람들처럼 도시 전체가 즐기는 축제는 보지 못한 것 같다. 이곳에서는 얼마 전 뭄바이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축제 중 하나인 가네샤 축제가 있었는데 가정의 축복을 비는 축제라고 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온 도시 사람들이 해안가로 모여들어 가네샤 상을 바다에 띄워 보낸다. 엄청난 바다쓰레기를 형성하지만 인도사람들은 이 가네샤 상을 바다에 띄워 보냄으로써 가정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한다.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 축제여서 인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해안가로 줄지어 걸어가고 그 행렬 속에서 음악과 춤을 즐기는 모습에 나도 절로 흥이 났다. 가네샤 상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알 수도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네샤 상에 많은 투자를 하여 크고 좋은 가네샤 상을 준비한다고 한다.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는 가네샤 상이 씩씩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만큼 즐겁고 흥겨운 모습이었다. 행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긴장하기도 했지만 색소가루를 맞은 후부터 긴장이 풀려서 긴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기도 했다. 가네샤 축제를 통해 본 인도 사람들은 참 흥이 많은 것 같다. 즉흥적으로 북도 두드리고 춤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마치 유명 가수 콘서트 장 같은 분위기였다. 앞으로 있을 다양한 축제들이 더욱 기대된다.



3. 인도팀은 쓰레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지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 주변에는 거리에 판자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는 쓰레기가 참 많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의 쓰레기를 모아 놓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쓰레기차 주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쓰레기에는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사람 및 가축의 변도 함께 있다. 이렇게 온갖 쓰레기가 사람들의 생활공간에 있는데 악취는 물론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특히 여자와 아이들)의 위생 상태도 염려가 된다. 뭄바이의 한 로고 중에 'Green Nombai, Clean Mumbai 라는 것이 있다. 뭄바이 자체에서도 거리의 쓰레기 문제나 위생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쓰레기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씨앗을 심어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진행한 Korea culture day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해 보자는 힘을 불어 넣기 위해서였는데 우리 생각만큼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왕 시작 한 프로젝트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노력을 하고 싶다. 우리가 먼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들도 이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볼 것이다. 쓰레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길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역 사람들에게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나가는 도화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4-1: 이곳에서 다른 3명의 단원보다 배변활동으로 고생했다. (그래서 다양한 별명도 얻었다.) 지금은 괜찮은가?

배변활동으로 고생 할 것은 한국에서부터 예상 했던 문제였다. 하지만 병수오빠의 저주 덕분인지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장이 긴장 상태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 장이 긴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슬아슬하고 긴장감 넘치는 한 주였다. 배변활동으로 얻은 다양한 별명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처음에는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지금은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배변활동에 문제는 없지만 조만간 또 생길 예정이다.

4-2: 배변활동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장소 별로 화장실이 천차만별이라 부담을 가지기도 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인도의 화장실에 대한 느낌을 밝힌다면?

배변활동은 오로지 숙소인 IH에서 가장 편하게 마음을 놓고 기분 좋게 해결할 수 있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물도 잘 안마시고 되도록 외출하기 전에 다 해결하고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최대한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다. 한국에서도 화장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는데(특히 화장실 위생) 인도에서 우리나라의 화장실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한 것은 내 잘못인 것 같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인도에 가면 인도에 있는 화장실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리와 마음과 행동은 모두 따로따로였다. 머리는 이해가 가는데 내 마음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너무 반대했고 발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변기의 모양에 상관없이 물을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물 바가지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다.

초상화 옆에 선 배변공주



처음에 숙소 이외의 화장실을 간 것은 Juhu에 있는 화장실이다. 그곳 화장실은 해변을 이용한 관광객들을 위한 샤워실과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을 내리는 레버 없이 변기 옆에 물바가지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것이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변기는 절대 좌변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변기와는 모양도 다르게 생겼고 처음 보면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에 있을 때 푸세식 화장실도 잘 갔었는데 변기와 물바가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의아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곳 화장실을 인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사용하는데 나는 매번 망설이고 힘들어 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인도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화장실을 자신들은 매일 이용하고 있고, 깨끗하지 못한 그 곳 밖에 이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어쩌면 화장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이곳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다는 것은 사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아직 인도의 화장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앞으로 내가 5개월 동안 살면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인 것 같다. 인도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 갈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느 화장실이라도 다 갈 수 있을 것이고 배변활동에 두려움 없이 전 세계를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



배변공주와 일곱 아이들

5. 가족보다 더 가까이 있는 팀원과의 관계에 대해 평하자면?



나랑 A는 생활패턴이 비슷해서 정말 편하다. 사실 둘 다 청소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만약 누구 하나라도 청소나 정리정돈에 신경 쓰는 성격이었다면 둘 다 엄청 피곤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둘 모두 쿨~하게 빨래는 내일, 청소는 그 다음.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가이드를 정해놓고 생활해서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다.

때때로 A는 나보다 더 깊은 생각들을 해서 배울 점도 많다. 우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인물은 A이다. 가끔 보면 지치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는데 곳곳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해가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대단한 것 같다.

B와 C는 티격태격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많이 신경 쓰이지는 않는다. C가 일방적으로 B를 조련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

그래서 둘의 별명은 톰 B와 제리 C이다.

하지만 나도 제리 C가 톰 B을 조련하는 것에 어느새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 B에게 미안하다.





(우리 팀의 아이디어 뱅크!) 준비도 많이 하고 부지런하기 때문 인 것 같다.^^

C는 민감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자극하지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극을 할 경우 자체적으로 걸러낸다. 그래도 항상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C이다. 웃음 코드가 잘 맞기도 하고 알고 보면 C도 참 유쾌한 사람이다. 가끔 회의를 하면 C는 여왕개미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일하는 일개미 같을 때가 있다. C가 평소에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하고

B는 서툴기는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 B는 친화력이 좋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말도 잘하고 금방 친해지는 것 같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가장 먼저 친해지는 사람은 B인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B처럼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팀원들은 각자의 독특한 색깔들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색깔들 틈 사이에 다른 색깔들을 맞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서로의 교집합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언제 그 교집합이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서로의 교집합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 삐걱거리고 어긋나던 네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가 되어 천천히 움직이는 팀워크를 얻어가고 싶다. 우리 팀원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자리에 모여 지금의 시간들을 추억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1. 뭄바이 = 고층건물 + 판잣집



IH 옥상에서 볼 수 있는 주변 모습

10기 인도팀이 9월 한 달 동안 머무른 곳은 YMCA International House(IH)이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기차역(명칭:Mumbai Central Station)과 버스터미널(명칭:Central Terminal, 시외버스터미널)이 말해주듯, 이곳은 뭄바이의 도심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인지 IH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높은 건물이 많다는 것이다. 인도의 건물 중에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당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데, 그리하여 상당 수의 고층건물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IH 역시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IH 옥상에 오르면, 주변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새롭게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진 건물을 볼 수 있다. 낡고 허름한 건물도 있지만 완공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집들도 많다.

그렇다고 이곳 뭄바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매일 까마띠뿌라(Kamathipura)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향하는 길에는 판자촌이 즐비해있다. 특히 IH 부근에는 대부분 가방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는 무슬림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다. 심지어 길에 천막을 치고 이를 집으로 삼아 살고 있는 가족들도 보인다.



까마띠뿌라 가는 길



#1. 뭄바이 = 고층건물 + 판잣집

불과 2개월 전, 우리는 국내훈련 무빙스쿨(Moving School)로 '주거문제'를 선정하고 인천주거복지센터를 방문했었다. 소설 <괭이부리말아이들>의 배경이었던 마을은 건너편에 아파트에 둘러쌓인채 남아있는 판자촌이었다. 물론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재개발 현상이 무수히 많다. 뭄바이 역시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Bombay YMCA 각 Branch를 이동하는 길에서도 부촌과 슬럼가가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되는 모습이 끊임없이 보였다. 또한 인도에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이들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들어왔기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확인하는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이에 우리 역시 숙소가 정해진 상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의 삶을 살아보자 생각하고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고, 잠자리가 있는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남녀 각방은 사용자가 청소하고, 물 등의 자원을 아껴쓰는 등으로 (국내훈련 워크북 앞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입장의 동일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CS 건물에서 보이는 고층건물(좌)
이곳에서 멀지 않은 대로변 4000ft 높이의 호텔 공사장(우)



DSC 건물이 위치한 골목 앞 공사장, 학교가 있던 장소였지만, 고층빌딩이 들어설 예정



#2. 기업형 슈퍼마켓, 인도에서 만나다

뭄바이는 인도 내에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 중 하나다. 또한 국제적인 상업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IH 근처에는 맥*날드, K*C, 도*노피자 등의 다국적 기업의 상점이 있다. 까마띠뿌라로 향하는 도중에 큰 도로를 건너게 되는데, 그 대로변에 2개의 패스트푸드 점포가 나란히 위치해있다. 처음 2개의 점포를 발견했을 때의 사실 반가움(?)이 들었다. 실제로 9월 마지막주 까마띠뿌라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Korea Culture Day) 행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무엇보다 기쁨에 차 있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음식도 아닌 것에 반응한 우리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배를 채워주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다. 게다가 그곳 역시 현지인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이곳 역시 거대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외식업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생필품과 간식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조그만 가게를 이용하던 우리는 IH 근처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찾았다. 이름은 릴*이언스슈퍼(Reliance Super). 내부를 둘러본 우리는 한국의 롯데슈퍼, 홈*러스-익스프레스, G*슈퍼마켓 정도의 크기를 가진 상점으로 생각했다. 일반 소규모 상점에서는 팔지 않는 묶음(번들)제품도 팔고 있었으며, 회원제로 운영하며 물품배달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것이 기업형 슈퍼마켓과 다를 바가 없었다. 며칠 뒤 이 가게의 이름은 TV CF를 비롯해 도로에 있는 광고선전물에서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곳에서도 보았던, 그래서 익숙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참고로 인도 대기업 중에 하나인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 무케시 암바니는 2010년 인도 최대 갑부 자리를 차지했으며, 당시 290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인근의 Reliance Super



인근의 휴대전화 중심의 종합쇼핑몰. 1층에 위치한 Big Bazaar는 이곳외에서도 볼 수 있다.

#2. 기업형 슈퍼마켓, 인도에서 만나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인도의 대기업(삼성)쯤으로 타타(TATA)그룹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곳 시장에서 상당 부분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다. 실제로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기준으로 보자면, 에어컨은 TATA, 텔레비전은 SONY 등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NOKIA, SAMSUNG, Blackberry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공산품 중에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의 치약, 칫솔, 화장품 등이 있었고 빨래비누조차 Unilever에서 나오는 제품이었다. 심지어 한국 과자인 고*밥, 초*파이 등도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 브랜드 볼 때 반갑고 으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HYUNDAI나 SAMSUNG, LG 등 한국에서도 인도를 하나의 세계 시장으로 삼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역시 다국적 기업의 한 형태라는 생각에 인도인의 입장에 서면 온전히 그런 기분만 느껴지는 않는다. 인간의 삶을 나아지게 할지라도 결국 이득을 보는 이들은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분명한 것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이곳 인도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빈부격차며, 모두가 잘 사는 것보다는 일부만 잘살자고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지금 인도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절대적 빈곤층 역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나마 우선적으로 대형매장 대신 숙소와 가까운 ‘동네 구멍가게’ 를 이용하자고 다짐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1H 앞에 있는 상점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 즉 비조직 부분이 2006년 현재 인도의 전체 소매유통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풀어 생각하면, 인도의 소매유통업의 발전은 비조직 부문이 담당하던 소매유통업을 이제 조직 부문이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재래시장과 소형 점포 및 노점 등 비조직 부문은 붕괴하고 월마트 같은 외국 대기업이나 릴라이언스 프레시(Reliance Fresh) 같은 인도 대기업 등 조직 부문인 대형 유통업체들만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중략) ... 소매유통업에 종사하는 8%의 사람들은 자영업자(self-employment)다. 쉽게 말해서 골목에서 혼자 좁은 공간에 앉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조그만 가게가 문을 닫으면 여기에 목을 걸고 있는 한 가족은 길거리로 나왔게 될 것이다.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 <인도는 울통불통하다> (정호영, 한스쿤텐츠, 2011)



MONTHLY PHOTO











